

# 1920년대 조선농촌에서 감행한 《동척》이민들의 범죄행위

리택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학살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자원과 재부를 닥치는대로 약탈하여갔습니다.》(《김일성전집》 제6권 171페이지)

일제는 《동척》(1908년 12월조작)을 통하여 1910년부터 1926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4 000여호에 달하는 일본인이민들을 엄격히 선발하여 조선농촌에 침투시켜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1920년대 조선농촌에서 감행한 《동척》이민락탈자들의 범죄행위는 무엇보다먼저 조선농민들의 경작지를 마구 강탈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극도로 멸망시킨것이다.

일제는 《동척》이민락탈자들의 토지락탈책동을 적극 조장시키기 위하여 1913년 10월 29일 칙령 제39호로서 《역둔토특별처분령》을 공포하였다. 일제는 《역둔토특별처분령》에 《정부는 동양척식회사에 대하여 일본이민용에 필요한 토지를 매불 또는 대여…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박아넣음으로써 《동척》이민들이 조선의 토지를 마구 강탈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었다. 이리하여 《동척》이민들은 조선농민들의 토지를 강도적인 방법으로 강탈하였다.

1922년 4월 전라남도 라주군 방상리에 기여든 《동척》이민락탈무리들은 100여호의 조선농민들이 경작하던 토지 전부를 강탈하였으며 같은해 강진군 도암면에서도 수십호농민들의 경작지를 마구 빼앗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동척》이민락탈자들 자신이 토지를 강도적으로 약탈하였을뿐아니라 회사 역시 조선농민들에게서 강도적인 방법으로 강탈한 토지를 이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넘겨

주었다.

당시 《동척》이 일본에서 선발된자들을 이민으로 끌어들이고는 농민들의 소작지를 빼앗아 이들에게 넘겨주고있는데 대하여 《동아일보》는 《일이민 10여만평, 1등전답은 모조리 이민에게》라는 표제를 달고 이 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이민을 끌어 들여 조선농민들이 경작하는 1등전답을 강탈하여 그들에게 주는데 제일 적게 주는것이 6 000평이며 13명의 이민에게 준것만도 10여만평이 된다고 폭로하였다.

《동척》과 《동척》이민락탈자들의 이러한 약탈로 하여 그들의 수중에 장악된 토지는 1928년에 1만 174정보로 늘어났으며 1931년 봄 전라남도 라주군에 침입한 《동척》이민 3 788명이 소유한 토지는 3 732만 905평에 달했다.

이처럼 《동척》이민락탈자들에게 많은 토지가 계속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동척》이민락탈자들에게 자주 내려가 그들을 모아놓고 《그대들가운데서 순량한 이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는…한사람앞에 1정 5단(4 500평)의 토지를 새로 주겠다.》라고 공포하면서 그들의 토지강탈야욕을 추동하였다.

《동척》이민락탈자들의 강도행위에 만족을 느낀 회사의 우두머리들도 《…이주당시에 있어서는 풍토의 변화, 언어관습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불안을 느끼고 고향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자들이 있었으나 …가정에 여유가 생기고 생활의 안정이 일본에서 살던 당시에 비할바 아니였으며 나아가서는 곳곳에서 논, 밭을 매수하는가 하면 혹은 지방의 명예직에 오르는 등 그 기초가 더욱 공고하게 되었으므로 대개 그업을 장려하는데 이르렀다.》라고 실토하였다.

《동척》이민락탈자들의 토지락탈행위는

그 이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더 강화되었으며 조선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동척》이민략탈자들에게 토지를 빼앗긴 조선농민들은 정든 고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해외로 류랑하였는데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동아일보》는 《전남농촌의 대공황, 전답을 잃고 외지로 가는 농민, 전라남도에는 일군까지 없다. 원인은 〈동척〉의 일이민》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 회사가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사이에 2만여명의 인구에 약 2000여호의 이민을 조선농촌에 침투시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그들에게 줌으로써 조선농민들은 그로 하여 생활상 큰 위험을 받아 정깊은 전토를 남의 손에 빼앗기고 늙은 부모와 처자를 데리고 멀리 만주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류랑한다고 하였다. 특히 기후조건과 토지의 비옥도가 가장 좋은 전라남도는 다른 지방보다 《동척》이민략탈자들에 의한 타격이 더 심하였다는데 라주군 차전면 방상리에서는 100여호미만이 한동리에서 47호가 그리고 강진군 도암면에서도 100여호의 농민들이 해외로 류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형편을 보도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농민들의 해외류랑현상을 《북만주 이주동포 총계 6만여명》이라는 표제 밑에 일본인이민략탈자들에게 밀려서 북만주로 조선사람이 온다고 쓴 중국신문 론평의 글을 인용하면서 《조선농민들이 북만주로 이주하는 원인은 일본인이 조선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밀려서 쫓겨나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동아일보》 11월 4일부는 《〈동척〉이민을 폐지하라》는 표제를 달고 일본도쿄에 있는 한 인사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는 지난 《동척》이민략탈자들을 조선사람 전부와 해도 과언이 아닌 80%의 조선농민들에게 가장 포악한 침입자라고 략인하고 필자가 직접 경상남북도지방을 순회하면서 목

격한 사실을 전하였다. 필자는 1922년 여름에 경상북도지방을 순회할 기회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 기간 가장 큰 인상을 받은것이 〈동척〉이민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조선사람의 생활을 개선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동척〉이민에게 의식주를 빼앗긴 조선소작인들의 비참한 처지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벼가 나무에서 되는지 풀에서 달리는지 모르는 소위 도외인사와 유식한 계급에게는 조선소작인이 자본을 잃고 생산적으로 사형광고를 받는 그 처지 가련하다 할가 비참하다 할가 말할수 없는, 밥도 없고 죽도 없고 집도 없는 그 모양은 상상밖이다.》라고 절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현상은 《동척》대 소작인사이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전민족의 생활에 관계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폭로하였다.

조선농민들은 북만주뿐아니라 일본, 하와이 등을 비롯하여 해외각지로 류랑하였는데 1921~1924년기간에만도 일본에 류랑한 수는 4만여명으로부터 16만 8 000여명으로 증가되었다. 이것은 매해 평균 4만명의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갔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모든것은 조선농촌에서 감행한 《동척》이민략탈자들의 토지략탈책동이 빚어낸것이였다.

1920년대 조선농촌에서 감행한 《동척》이민략탈자들의 범죄행위는 다음으로 회사와 짜고 농민들로부터 더 많은 소작료를 강제로 강탈하도록 하는 한편 가혹한 소작료수탈을 반대하는 소작인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한것이다.

1924년 10월 사리원 대원리(현재의 사리원시 대성동지역), 광상리(현재의 사리원시 만금리지역)일대에서는 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총수확량이 겨우 3섬 6말뿐이었으나 《동척》은 그보다 엄청난 6섬을 소작료로 강탈한 사건이 있었다. 이 엄청난 소작료를 강

탈하도록 회사원들을 부추긴자가 바로 《동척》이민 모리니모라는자였다. 이자는 성질이 매우 조폭한자로서 자기의 논이 제일 아래막바지에 있는것으로 항상 물문제를 가지고 같은 동네의 조선인소작인들과 언쟁으로 살아가는자였다. 특히 이자는 《소작인대표》가 되면서부터 찍하면 《대원리농민들은 내가 손을 대지 않고도 다 죽일수 있다.》고 하면서 소작료량을 정할 때에 예상수확량의 몇배를 강탈하도록 회사와 교섭하여 이러한 사건을 조작하게 하였다.

《동척》이민략탈자들의 죄행은 이 회사의 가혹한 소작료수탈을 반대하는 소작인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한데서도 나타났다.

1925년 2월 황해남도 재령군 북률면 농민들은 강제적인 소작료수탈을 하다 못하여 가장집물까지 수탈하려는 《동척》회사원들의 만행에 격분하여 그자들에게 된매를 안겨 쫓아보낸 일이 있었다. 이때 《동척》이민 40여명은 직접 총과 흉기를 휴대하고 회사원들과 함께 또다시 현장에 나타나 총으로 농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농들의 강도행위를 미리 간파한 소작인 400여명은 집단적으로 그자들의 책동에 완강히 항거하였다. 소작인들의 집단적인 항거에 질겁한 《동척》이민략탈자들은 사무라이본성 그대로 적수공권의 소작인들을 대상으로 총까지 쏘아대면서 그들의 투쟁을 탄압하였다. 《동척》이민략탈자들의 총격사건으로 사태가 더욱 험악해지는데 질겁한 이 회사에서는 할수없이 농민들의 가장집물수탈을 중지하고 투쟁의 앞장에 섰던 5명의 농민들을 체포해가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동척》이민략탈자들은 농민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했을뿐아니라 그들의 생활조건도 심히 악화시켰다.

이것은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가사리에 사는 김씨농민의 처지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예로부터 가사리는 역참마을로서 역둔토가 많아 그곳 농민들은 이것을 소작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 토지 전부가 《동척》의 소유로 되면서 《동척》이민 7명이 전부 독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농민들은 이 《동척》이민략탈자들로부터 소작권을 얻어 농사를 지었는데 가사리의 조선농민 59호중에서 45호가 이들의 토지에 얹매어 갖은 멸시와 천대, 학대를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있었다.

김씨농민은 7명의 식구를 거느린 회사의 소작인으로서 소작수입이 얼마되지 않아 《동척》이민략탈자들로부터 빚을 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있었다. 1927년에도 《동척》이민 노구씨의 논 서맡지기를 소작하여 벼가 7섬이 났는데 절반은 소작료로, 나머지는 비료값 등으로 타작마당에서 전부 빼앗기고도 모자라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씨농민은 여러 식구를 살리기 위하여 쌀을 구하러 집을 떠났다. 그가 집을 떠난 사이인 11월 27일 아침 같은 마을에 사는 《동척》이민 야마모도는 자기가 꾸어준 돈 28원을 갚지 않았다는 리유로 김씨의 집에 달려들어 가마, 장독, 김치독, 옷류 지어는 돌절구, 땔나무, 벼짚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15가지의 가장집물을 강제로 차압하고 《야마모도의 물건》이라고 쓴 쪽지를 붙여놓았다. 이자는 그렇게 하고도 성차지 않아 7명의 식구가 1년간 연명할 식량인 벼 7말과 콩 2말 5되와 농기구들까지 차압하여 자기 집에 실어갔다. 뒤이어 같은 동네의 《동척》이민인 노구씨가 또 달려들어 야마모도가 쪽지를 붙힌외의 나머지 물건에 자기 이름을 써붙이였다. 그 다음날에는 같은 마을의 다른 《동척》이민이 김씨농민에게 꾸어준 돈 10원이 있다는 리유로 《동척》회사소유의 밭에 파종한 밀보리는 《사까이가 수납한다.》고 쓴 표말을 박아놓았다. 그리고 그가 의거하고있는 집에는 《이 집건물의 소유자는 안성군 보개면 가토리의 호우

찌》라는 문패까지 달아놓았다. 결국 김씨 농민은 당장 한지에 나앉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씨농민 한사람에 한한 것이 아니라 《동척》에 얹매인 모든 소작인들의 실패였다.

1920년대 조선농촌에서 감행한 《동척》이민락탈자들의 범죄행위는 또한 저들의 이른바 주인행세에 거슬리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온갖 야수적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한 것이었다.

일제는 《동척》이민락탈자들에게 총을 비롯한 각종 흉기들을 쥐여주면서 조선농촌에 대한 《치안》과 락탈의 임무를 담당시켰다. 그러므로 《동척》이민락탈자들은 저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 살인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1920년 6월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토평리에 기여든 《동척》이민 히로세 다로는 같은 동네에 살고있는 조선농민과의 이른바 언쟁끝에 그를 총으로 쏘아 심한 중상을 입히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원래 히로세 다로는 1913년 말경에 《동척》을 통하여 조선에 기여든 후 이 회사의 비호밑에 조선농민들의 토지를 마구 강탈하였을 뿐아니라 고리대적착취를 통하여 많은 재물까지 굶어모은자였다. 1920년 봄에도 이자는 자기가 살고있는 동네의 많은 땅을 강탈하였을뿐아니라 지어 자기 밭과 련결되어있는 마을의 길까지 가로막고 길 한복판에 깊은 함정까지 파놓아 이 길을 리용하던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었다.

이에 대하여 한 농민이 항의하자 이자는 다짜고짜로 《조선놈의 새끼 무슨 잔소리야》라고 하면서 몇보 되지도 않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 농민을 총으로 3발씩이나 쏘아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이 광경을 현지에서 목격한 마을사람들과 피해자의 동생이 해당 경찰서에 여러차례 강력히 항의했으나 오히려 경찰은 히로세 다로와 《화

의》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동생을 때려 귀까지 멀게 하였다.

《동척》이민락탈자들의 란폭한 횡포는 1922년 4월 중순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에서도 있었다.

《동척》이민 다까하시는 회사의 비호밑에 한 농민의 소작지 6마지기를 하루아침 사이에 강탈하였다. 이에 격분한 농민이 그논에 들인 비료대금이라도 당장 낼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다짜고짜로 그에게 달려들어 굵은 몽둥이로 농민의 이마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그자의 몽둥이에 맞은 농민의 이마는 찢어져 피가 랑자하였으며 옷은 삽시에 피투성이가 되었다.

《동척》이민락탈자들의 이러한 강도행위는 그후에도 계속되었다.

1923년 10월 30일 황해남도 재령군 남률면 고잔리에 기여든 《동척》이민 하라는 수문비로 응당 내게 되어있는 벼 한말을 요구하는 농민을 식칼로 그의 이마를 내리찍어 중상을 입히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동척》이민락탈자들은 저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살인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1924년 10월 18일 경상남도 울산군 동부리에 기여들었던 《동척》이민 가리야가 같은 군의 삼남면 등억리에 살고있는 무고한 조선농민 김경도를 살해한데 대하여 《동아일보》는 《...가리야는 김경도를 구타하고 밭길로 복부를 차서 살해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가리야의 살인만행에 격분한 이 지방 농민들이 그자들의 야수적만행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어 《동척》이민 반대투쟁을 여러차례에 걸쳐 벌렸으나 일제의 보호를 받고있는 이자들의 살인행위는 도처에서 계속되었다.

1923년 11월 2일에는 경기도 포천군 소률면 직동리에 기여든 니이다 후미이찌로

---

는 같은 동네에 살고있는 조선농민 박재광이 꾸어준 돈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그를 총으로 쏘아죽이는 야만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농촌에서 감행한 《동척》이민략탈자들의 이러한 살인강도행위는 총칼로 조선을 강점한 일본침략군이나 농민복차림의 《동척》이민략탈자들이나 다같은 침략무리,

강도무리들이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난날 우리 나라 농촌에서 감행한 일제의 《동척》이민략탈자들의 살인강도행위는 조선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가장 극악한 범죄행위로 된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고있으며 기어이 값비싼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